

김정남 피살, 北-말레이시아 외교 갈등

북한, 시신 부검 강행 비판
北 배후설 강력 부인 기자회견
말레이, 평양 대사 송환 강수

김정남 암살사건이 4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지속해온 북한과 말레이시아를 갈라놓고 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하루빨리 덮으려는 듯 말레이시아 법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 조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 처리를 놓고 양국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첨예한 대립 국면에 접어들어 보인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20일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평양에 있는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강 대사의 말레이시아 주권침해 언행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강 대사는 17일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 "말레이시아가 우리 허락 없이 (김정남 시신 부검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기초적인 국제법과 영사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이며 우리 시민에 대한 법적 권리의 제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부검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말레이시아를 모독하고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강 대사를 소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가 20일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소환돼 비공개회의를 한 뒤 "말레이 경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북한 배후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환한 것은 일반적인 외교적 항의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조치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북한의 자국 대사까지 송환하는 예상 밖의 '강수'를 두자 김정남 피살사건을 둘러싼 북한과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날 오전 강 대사를 소환, 면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했다.

강 대사가 면담을 마친 뒤 자신의 전용 대사로 승용차를 타고 외교부 건물을 나갈 때 취재진이 둘러싸고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으며 운전자가 거칠게 차는 모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주 말레이시아 경찰의 김정남 시신 부검 강행 등을 이유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가 일간 디스타가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적반하장'

이라는 반응이 나올만한 일이다.

북한으로 이미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 암살 용의자 4명의 신병 확보 문제를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가해 처벌, 김정남 시신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1973년 국교를 수립한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를 최대 위기에 빠뜨리는 '벼랑 끝' 상황까지 전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2.3초...순식간에 끝났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들 "방송 촬영으로 속고 한 일"

'2.33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될 때 물리적인 힘이 개입한 시간은 이처럼 짧은 것으로 측정됐다.

순식간이라도 노출만 된다면 절명제 이를 수 있는 첨단 화학물질이 이번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실, 암살이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주목된다.

일본 후지TV는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이 영상은 20일 현재 유튜브에도 게재돼 널리 유포되면서 지구촌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밝은색 재킷 차림에 배낭을 오른쪽 어깨에 멘 김정남은 출국장에서

위쪽 전광판을 잠시 바라본 후 무인발권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현재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베트남 여권 소지자인 도안 티 흐영(29)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사(25)로 보이는 여성은 김정남의 앞뒤로 몰래 접근한다.

흰색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어깨까지 기른 여성은 재빨리 김정남의 뒤로 접근해 그의 어깨 위로 두 팔을 뻗어 어떤 물체를 그의 얼굴을 감싼다. 하나... 둘... 동영상을 분석할 때 물리적 접촉 시간은 약 2.33초 정도로 계산됐다.

현재 용의자들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말에 속아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살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70 북위 6대 황제 효문제

효문제(467-499)는 북위의 제6대 황제로 본명은 탁발광이다. 5대 황제 헌문제의 아들로 5세에 즉위했다. 오직 13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어린 나이에 집권했다는 점이다. 중원의 풍부한 생산력이 남았다. 북위의 역사서 '위서'에는 천도 이유를 한화와 통일로 천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치세는 조모 풍태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대 황제 문성제가 26세로 승하하자 장남인 헌문제(11세)로 왕위에 오르고 그녀는 어린 헌문제를 대신해 임조정정에 나섰다. 손자인 효문제(태어나 헌문제에게 통치권을 넘겼다. 그러나 태후파와 황제파의 갈등이 심해지자 470년 헌문제는 5세 아들 효문제에게 제위를 넘겨주고 풍태후가 2차 섭정에 나섰다. 476년 헌문제를 독살하고 490년 사망할 때까지 북위는 사실상 풍태후의 천하였

치게 북방에 치우쳐 있었다. 방어하기에는 너무 변방이었다. 셋째로 인구도 늘어나 평성 주변의 경제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중원의 풍부한 생산력이 남았다. 북위의 역사서 '위서'에는 천도 이유를 한화와 통일로 천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치세는 조모 풍태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4대 황제 문성제가 26세로 승하하자 장남인 헌문제(11세)로 왕위에 오르고 그녀는 어린 헌문제를 대신해 임조정정에 나섰다. 손자인 효문제(태어나 헌문제에게 통치권을 넘겼다. 그러나 태후파와 황제파의 갈등이 심해지자 470년 헌문제는 5세 아들 효문제에게 제위를 넘겨주고 풍태후가 2차 섭정에 나섰다. 476년 헌문제를 독살하고 490년 사망할 때까지 북위는 사실상 풍태후의 천하였

낙양 천도 후 적극적 한화정책

다. 나이 어린 효문제는 묵묵히 자신의 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풍태후의 교육은 엄격하기 그지 없었다. 즉위 초기에는 한 겨울에 홀출듯 입헌 효문제를 냉방에 가두어 며칠씩 굶기기도 했다. 유교경전이나 제가배가 사상에 통달하도록 높은 재능을 훈육하였다. 특히 조직을 작성할 때 황제가 직접 쓰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한족의 풍습과 윤리에 익숙해졌다. 어려서부터 한화(漢化)의 의지가 배양된 셈이다.

490년 풍태후가 죽자 25세가 된 효문제의 천정이 시작되었다. 그의 통치 이념은 북위의 문명화, 한화였다. 강남의 화려한 귀족문화가 북위에서도 구현되기를 희망했다. 낙양천도는 풍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년간 풍태후의 권세 앞에서 황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수도 평성은 그녀가 구축해놓은 구질서의 본산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자신의 국정이상을 펼쳐보고 싶었다. 이런 겉치에서 강남에 가까운 낙양은 이상적인 선택지였다. 천도를 단행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유목민족 문화에서 벗어나 한족의 고급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둘째로 강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수도 평성이 지나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남정군을 동원해 성공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후세에 보일 것인가, 짐은 남정하고자 하노라. 만약에 남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곳으로 천도하고자 하노라." 남안왕 탁발광이 "오직 폐하께서 남정만 거두신다면 저희들은 도읍을 낙양으로 옮기는데 찬성하겠습니다"고 응답했다. 북위의 낙양시대가 시작되었다.

낙양 천도 후 적극적 한화정책을 실시했다. 스스로 성을 원(元)으로 고쳐 이름을 원광이라 하였다. 호족과 한족의 통혼을 장려하고 귀족사회적 질서를 정비했다. 소위 성족상정(姓族詳定) 정책이다. 법양 노씨, 형양 정씨 등 한족 5가문을 황실과 통혼 가능한 1급 귀족으로 승진했다. 목, 육, 등 등 선비족의 8성도 최고 가문으로 인정했다. 수도 평성은 그녀가 구축해놓은 구질서의 본산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자신의 국정이상을 펼쳐보고 싶었다. 이런 겉치에서 강남에 가까운 낙양은 이상적인 선택지였다. 천도를 단행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유목민족 문화에서 벗어나 한족의 고급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둘째로 강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수도 평성이 지나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광주 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월세수익내면서 내 건물 확보)

추천

- 본사건물 / 지사 건물
- 연구실,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가 38억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광주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 010-7384-7800
-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전방으로 전망 최고 보전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상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회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평산구 소촌동 (주유소) 토 207평, 건 43평 소촌공단 입구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5억6천 → 최저가 5억6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지) 총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